

-2018년 제4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18. 10. 10.(수)

도시공간개선단

# 「2018년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 의 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0. 10.(수) 16:00~18:00
-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2
- ◆ 참석위원 : 11명(총 17명으로 구성)
  - 승효상(위원장, 이로재 대표)
  -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장),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 이경선(시의원), 고병국(시의원)
  - 신윤재(서울디자인재단 기획경영본부장/代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김영준(서울시 총괄건축가)
  -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 이영혜((주)디자인하우스 대표)
  -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 ◆ 간 사 : 김승수(도시공간개선반장)
  - ※ 임재용/프란시스코 사닌(2017 서울비엔날레 공동총감독) 참석
- ◆ 상정안건 : 6건
  1. 2019 서울비엔날레 예산(안)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3.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큐레이터 선정
  4. 2019 서울비엔날레 컨퍼런스 개최
  5. 기타 현안
  6.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안)

**간사 성원 보고**

**위원장 개회 선언**

- 지금부터 2018년 제4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9 서울비엔날레 예산(안)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서울비엔날레 추진을 위해 서울시 자체 예산외 반드시 민간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엔날레의 지속적 추진 및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퍼머넌트 후원 유치가 중요합니다. 지난 1회 비엔날레 추진시 여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민간재원 유치가 힘들었다는 점 이해합니다만 2회 행사는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재원 확보 목표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맞는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총감독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 안건설명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반드시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국내외 우수한 비엔날레는 모두 별도의 추진조직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5대 디자인비엔날레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도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세계최고의 비엔날레인 베니스비엔날레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유도 있지만 수익사업, 후원유치 등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위원〉

- 다른 비엔날레 재단도 서울비엔날레재단처럼 행사 개최 후에 설립을 추진하는지요?

〈○○○ 위원〉

-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재단은 단순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도시 및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 관련 전시나 교육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3.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큐레이터 선정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향후 추가되는 큐레이터는 공동총감독이 서울비엔날레 기획방향 등에 맞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선정시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4. 2019 서울비엔날레 컨퍼런스 개최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좋은 의견들을 향후 기획시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컨퍼런스 관련 언론보도 예정인지요?

〈보 고 자〉

- 네, 행사개최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기자설명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 위원〉

- 언론보도시 어렵지 않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 갖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 1회 행사추진시 홍보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2회 비엔날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첫 번째 홍보의 자리입니다. 아쉬운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5. 기타 현안 논의

〈보 고 자〉

- 2019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 안에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 있으니 다음 안건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6. 2019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안)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총감독이 말씀하신 도시전 부분에서 일반도시전과 초청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밍을 다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시에게 서울비엔날레 참여의향을 묻는 것 자체가 초청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도시가 곧 초청도시입니다.

〈보 고 자〉

- 일반도시는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울비엔날레가 제한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고 초청 도시는 공간이나 예산부분에 차별성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원〉

- 의미는 알겠으나 서울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도시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

- 보고하신 초청도시전의 도시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의도의 도시전은 1-2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총감독께서 말씀하신 도시 중 코펜하겐의 경우 해당 도시에서 서울비엔날레에 먼저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메데인의 경우 서울비엔날레 주제와 맞는 이슈가 있는 도시를 이유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보 고 자〉

- 네 그렇습니다. 코펜하겐과 메데인은 이슈와 필요성이 있고 또한 평양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뭄바이와 케이프타운은 형평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 두 감독의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게스트시티란 그 도시에서 서울비엔날레의 주제에 맞는 행사나 프로젝트 등이 있는 경우 초청하는 것입니다. 도시들이 참여의사가 있다고 해서 기준 없이 게스트시티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현상이 우리 비엔날레의 주제와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 고 자〉

-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스트시티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감독간 논의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평양의 경우 도시전 내에서 다른 도시들처럼 다뤄질 부분이 아닙니다.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 위원〉

- 평양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서울비엔날레와 협력하여 지난 비엔날레 도시전 내 평양전시처럼 추진 예정입니다.

〈○○○ 위원〉

- 지난 비엔날레 평양전시처럼 관련 전문가의 콘텐츠(자료)를 받아서 비엔날레에서 만드는 전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위원〉

- 비엔날레 안에서 평양을 다루기에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절차에 많은 행정인력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엔날레 자체적으로 풀어내기 어렵다면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네 위원님들 말씀처럼 평양관련 내용은 두 감독님께서도 더 검토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운영위원회에서도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도시전에 국내 도시도 많이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작년에 다섯 개 정도의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비엔날레에는 더 많은 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도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 고 자〉

- 도시선정 기준은 2019 서울비엔날레의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여러 행사장소 중 서울광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 고 자〉

- 내년에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옥상데크에 파빌리온이나 조형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전시 등을 서울광장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의 경우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이 어려우며 시민안전문제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고 사용승인도 별도의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소인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자〉

- 서울비엔날레 오픈기간 동안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행사기간을 10월에서 12월까지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 고 자〉

- 지난 1회 행사는 UIA 등 많은 건축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비엔날레 개막도 시기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 행사는 저희 행사에 맞게 기간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위원〉

- 비엔날레 행사 기간은 개막일자만 조금 조정될 뿐 행사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매회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또한 12월까지 행사가 이어지면 날씨 등 여러 변수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원〉

- 네 또한 9월은 서울뿐만아니라 전국에 많은 축제가 개최됩니다. 연계 홍보 효과도 있고 9월에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9월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맞이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행사기간 및 개막일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아울러 시카고비엔날레 등 해외 비엔날레 행사일정 등도 검토하여 관람객 및 참여작가 등의 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자〉

-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장소 협조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보 고 자〉

- 네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협조 요청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 기자설명회 발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요?

〈보 고 자〉

- 행사기획(안)중 팩트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말씀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보 고 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전시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회 도시전의 경우 50개의 도시가 참여했습니다만 왜 그 50개의 도시가 참여

했는지 그 도시들이 주제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감독님께서 보고하신 도시 리스트를 보고 지난 행사에 비해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난 2015년 심포지엄때부터 논의되었던 것들은 지속성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울비엔날레가 다른 비엔날레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AB과 리서치만이 서울비엔날레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새로운 구상인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진정한 차별성은 계속 바뀌는 것과 지속성이 함께 가야합니다. 전시는 전시답게 재밌게 정말 멋지게 이뤄지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 담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 <○○○ 위원>

-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비엔날레는 건축가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시민대상의 문화행사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전시가 훌륭해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전시를 보여줘서 시민이 참여하고 그래야 시민이 담론형성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재미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서울시가 좋은 도시를 가꾸는데 모멘트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이 공감했느냐. 두 번째는 그래서 전시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냐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명분이 없습니다. 두 감독님께서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서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 <○○○ 위원>

- 시민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민이 타깃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깃별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서 집합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위원〉

- 행사장소가 너무 넓게 여러 곳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곳에 집중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타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모두가 타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만을 위한 것도, 전문가만을 위한 것도 아닌 모두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시민을 위한 재미있는 전시, 훌륭한 전시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한 포럼 등 다름과 지속성,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서울비엔날레의 핵심입니다.
-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하이라인에서 시민과 건축가 약 천 여명이 동시에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행사에 이런 시도를 했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위원〉

- 오늘 보고하신 기획안에서 아쉬운 부분은 시장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의 대안 또한 논의되어야 하는데 미래 도시의 대안을 논의하면서 시장경제를 제외하고 논의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좋은 도시란 시장경제와 또 그 안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서울비엔날레가 건축가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행사도 그렇고 지금 기획과정도 보면 시민을 위한 이야기가 없어 보입니다. 구두로만 시민행사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시민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엔날레는 시민에게 문제를 펼쳐보이고 그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민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합도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상적 개념으로 보이고 들릴 수 있습니다. 감독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민도 예술가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 위원〉

- 네 맞습니다. 비엔날레는 도시와 건축을 모티브로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는 문화행사입니다. 다음 회의시 감독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지난 1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후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와 백서 제작 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단순히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연구하여 다음 행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위원〉

- 서울비엔날레는 장기간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2개월 동안 연속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단기 이벤트 프로그램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두 행사가 동떨어져서 운영되면 안 됩니다. 주제에 맞게 이벤트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풀어내야 합니다.

〈○○○ 위원〉

- 좋은 의견입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추진시 여러 소셜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여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활용시에는 일반홍보 표현과 다르게 미디어적 표현도 신경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 위원〉

- 두 감독께서는 오늘 회의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음회의시 이를 구체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폐회선언**

-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